

최근 北中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배 종 렬*

- I. 문제의 제기
- II. 최근 北中경제관계의 특징
- III. 北中경제관계의 쟁점과 평가
- IV. 맺음말

요 약

최근 北中경제관계의 특징은 ①핵실험,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무역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의 對中 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②무연탄, 철광석 등의 對中수출이 약진하는 가운데 광물성생산물 중심의 무역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③對中수출에서 산동성 등 비동북삼성 지역의 부상과 함께 對中수입에서 길림성의 전략적 위상변화로 중국의 성별 對北역학구조가 변동하고 있으며, ④대외통로확보를 전제로 한 ‘장길도(長吉圖)’ 변경경제개발구의 건설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중국의 對北경제협력은 ①對北수입보다는 對北수출에 바탕으로 두고 있고 단순 지하 자원수입형에 가까운 광물성생산물 對北수입이 근간이라 광물성생산품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성이 의심스러우며, ②의류(HS61, HS62), 아연괴(HS7901), 무연탄(HS2701) 등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韓中間 對北경제협력의 상호대체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③ 항만확보를 전제로 한 개발전략, 4.3억 달러의 이례적 월수입,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해체움직임, 중국식문화론 등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北中경제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장길도’ 개발로, 장길도개발 개방선도구, 즉 변경경제개발구 건설에 투영된 중국의 對北전략구도는 방향만 다를 뿐 과거 일본이 만주의 중심이었던 봉천(현 심양)을 버리고 장춘을 수도로 선택하면서 조선 북부 3항(청진항, 나진항, 웅기항)의 인프라정비를 통해 대련과 나진을 좌우 날개로 해 만주국을 건설했던 전략을 연상시킨다는 점이였다.

I. 문제의 제기

2010년 김정일의 두 차례 방중(2010. 5. 3~7, 8. 26~30)은 北中경제관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그 방중을 전후로 하여 천안함사건(2010. 3. 26),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2010. 11. 12)¹⁾, 연평도포격(2010. 11. 23) 등 선군 사상의 국제적 과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문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차를 두고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도 그렇지만, 주목되는 것은 동북삼성지역에 집중된 김정일의 방중동선이었다. 2010년 1차 방중(2010. 5. 3~7)에서 김정일은 대련, 천진, 심양 등 중국의 동북연해지역을 경유하면서 “대련시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 당과 정부

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²⁾. 또한 미국 카터 전대통령의 평양방문시 이루어졌던 2010년 2차 방중(2010. 8. 26~30)에서도 김정일은 길림, 장춘, 하얼빈 등의 산업시설을 방문(화신섬유공장, 길림농업대학, 항공기계공장, 증기터빈공장, 베이다황그룹 등)하면서 “동북지역과 조선은 가깝고 산천의 모습도 비슷하며 공업구조도 비슷하다. 조선은 동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방법과 경험을 연구하기를 바란다”며 北中경제협력의 강화의지를 천명했다.

둘째는 北中경제관계의 지속적 상승세였다. 주지하다시피 北中경제관계에 새로운 흐름을 조성한 것은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조치의 시행과 중국의

1) 2010년 11월 20일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지그프리트 헤커 소장은 뉴욕타임즈 인터뷰형식으로 “북한이 수백 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2) 조선신보, 2010. 5. 12.

〈표 1〉 어패류, 방직원료·제품의 대중·대일 수출과 대남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어패류	대중수출 (요령성)	10,792 (-)	6,499 (-)	5,563 (-)	2,748 (1,546)	5,755 (3,640)	4,047 (2,547)	47,977 (46,901)	143,016 (136,194)	206,931 (200,241)
	대일수출	63,367	55,852	50,553	52,658	72,420	89,235	102,541	113,187	78,000
	대남반출	2,658	8,900	12,807	9,059	23,302	34,422	34,227	60,626	81,413
방직원 료·제품	대중수출 (요령성)	2,505 (-)	4,444 (-)	2,994 (-)	1,190 (513)	968 (674)	2,584 (1,374)	28,508 (27,673)	43,137 (41,434)	57,637 (56,283)
	대일수출	127,721	123,906	95,218	64,966	60,184	68,729	59,350	56,593	37,205
	대남반출	28,685	41,895	45,707	37,885	45,103	52,983	54,364	85,021	95,862

출처: KOTRA 및 무역협회

동북삼성진흥계획의 시작이었다. 北中 무역은 2001년(〈표 1〉 참조)부터,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3년부터 질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³⁾ 국내일각에서 ‘동북4성론’ 등 北中경제관계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등장한 바 있었다⁴⁾. 北中경제관계의 심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또 다시 강화된 것은 천안함 사건(2010. 3) 이후 北中간 월별무역의 가파른 상승세가 시사하듯이 北中무역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유엔제재 등 경제외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점과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對北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장길도개발 개방선도구((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 이하 ‘장길도’로 약칭)’ 건설을 비준(2009. 8. 30)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II. 최근 北中경제관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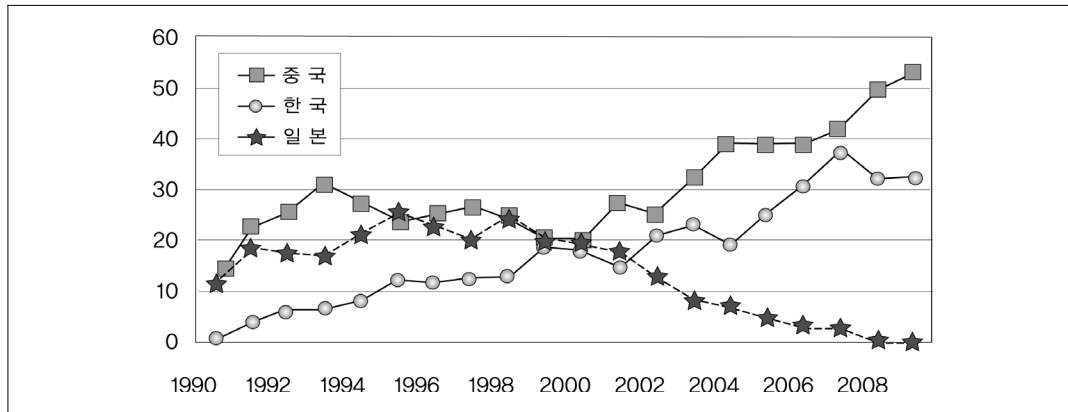
최근 北中경제관계의 주요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핵실험,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무역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의 對中 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둘째는 무연탄, 철광

3) 2003년 중국 길림성 상무청과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은 무산철광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중국 훈춘시는 나진항 개발을 위해 북한 라선시 지방정부와 교섭을 진행하였다.(배종렬, 위의 글, p. 58 또는 唱新, “中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世界經濟評論』, 2006년 5月号, p. 33-34).

4)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최근 조·중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평화재단 주최 전문가 포럼, 2006년 4월 20일, pp. 13-42 참조).

〈그림 1〉 북한의 韓中日 무역의존도 연도별 추이(남북교역 포함)

단위: %



출처: 통일부 및 KOTRA

석 등의 對中수출이 약진하는 가운데 광물성생산품중심의 무역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셋째는 對中수출에서 산동성 등 비동북삼성지역의 부상과 함께 對中수입에서 길림성의 전략적 위상변화로 중국의 성별 對北역학구조가 변동하고 있으며, 넷째는 대외통로확보를 전제로 한 ‘장길도’ 변경경제개발구의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 對중국 경제의존도의 심화

2000년만 하더라도 북한경제에 대한 韓中日의 영향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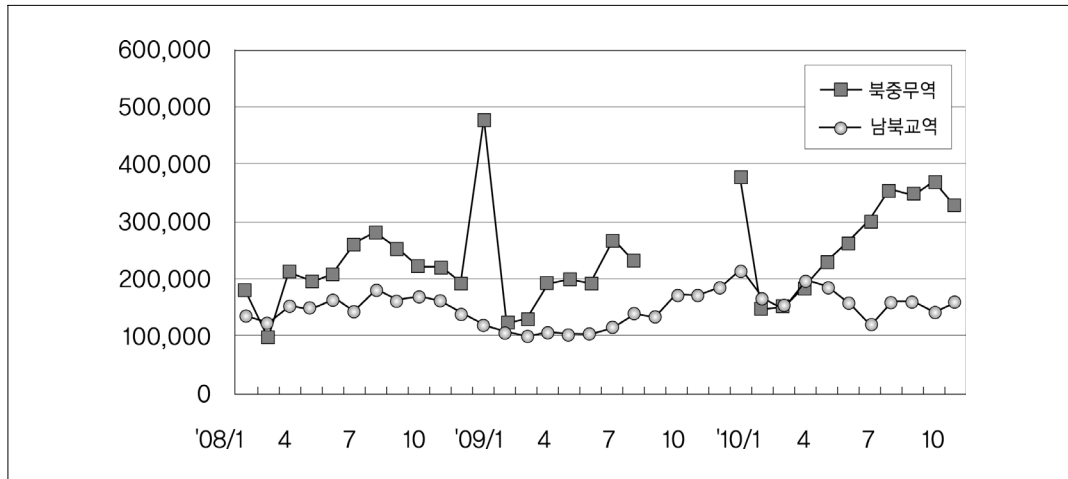
았다. 그러나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전후로 하여 對北경제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선 일본과는 달리 韓中日 그 정책방향을 對北경제관계의 확대로 가닥을 잡으면서 확연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그림 1〉 참조).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1년 32.6%에서 2002년 32.7%, 2003년 42.8%, 2004년 48.5%, 2005년 52.6%, 2006년 56.7%, 2007년 67.1%, 2008년 73.0%, 2009년 78.5%로 매년 증대되었으며, 2009년의 경우 남북교역을 포함한 對中무역의존도도 처음으로 50%를 돌파하였다⁵⁾.

주목할 변화는 2007년 이후였다. 주지

5) 남북교역을 포함한 對中무역의존도는 2001년 15%, 2002년 22.1%, 2003년 23.2%, 2004년 19.6%, 2005년 26%, 2006년 31.1%, 2007년 41.7%, 2008년 49.5%, 2009년 52.6%였다(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및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년도).

〈그림 2〉 북한의 對中무역과 남북교역의 월별 추이

단위: 천 달러



출처: 통일부 및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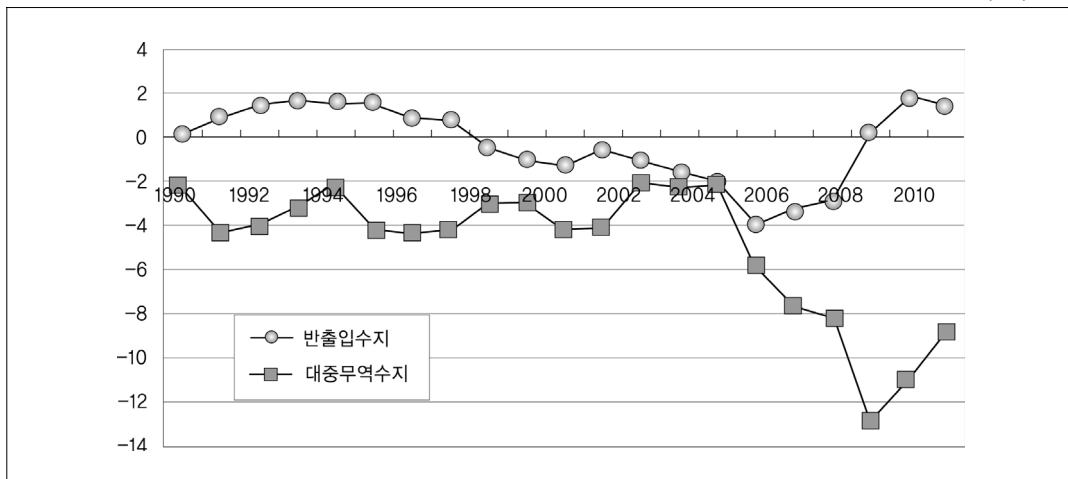
* 2009년 8~11월 중국의 월별해관통계 미발표

하다시피 개성공단건설이 본격화된 2004년 이후 북한의 대남교역의존도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韓中間의 격차는 줄어드는듯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韓中의 對北정책이 다른 궤적을 그리면서, 특히 천안함사건(2010. 3) 이후 對北경제제

〈그림 3〉 북한의 對中무역 및 남북교역 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출처: 통일부, KOTRA 및 한국무역협회(2010년은 1~10월 통계)

재로 하락세로 돌아선 남북교역과는 달리 北中무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북한의 對中경제의존도는 보다 심화되게 되었다(〈그림 2〉 참조). 그런데 북한의 對中경제의존도 심화가 對中수출보다는 對中수입의 증가세에 바탕을 두고 있어 對中 무역수지적자폭의 지속적 확대, 즉 중국의 對北지원이 北中경제관계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2002년 2억 달러였던 북한의 對中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2007년 8.1억 달러, 2008년 12.8억 달러로 급등했다. 2009년

북한의 對中수출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7억 9,305만 달러를, 對中수입은 전년대비 7.2% 감소한 18억 8,769만 달러를 기록해⁶⁾, 對中무역수지적자 규모는 10.9억 달러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2010년의 對中무역수지적자 규모가 2007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⁷⁾.

2. 광물성생산품중심 무역구조의 유지

HS코드 2단위 기준 북한의 상위 10대

〈표 2〉 금액기준 북한의 상위 10대 대중수입품목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1~10)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1	광물연료(27)	401,961	광물연료(27)	585,954	광물연료(27)	327,078	광물연료(27)	395,533
2	일반기계(84)	103,813	일반기계(84)	145,486	일반기계(84)	160,094	일반기계(84)	190,932
3	전기전자(85)	69,286	전기전자(85)	100,646	전기전자(85)	131,820	전기전자(85)	143,963
4	플라스틱(39)	54,590	편물의류(61)	86,911	일반차량(87)	103,073	일반차량(87)	126,107
5	일반차량(87)	53,655	플라스틱(39)	80,045	편물의류(61)	93,970	인조섬유(54)	62,655
6	인조섬유(54)	52,323	일반차량(87)	67,258	플라스틱(39)	74,692	플라스틱(39)	62,116
7	식용육류(02)	42,188	인조섬유(54)	55,016	철강(72)	68,045	철강(72)	62,047
8	철강(72)	36,647	철강(72)	48,264	인조섬유(54)	67,272	곡물(10)	46,690
9	곡물(10)	36,511	편물외의류(62)	46,530	곡물(10)	55,461	철강제품(73)	42,073
10	육어류제품(16)	36,343	동식물유지(15)	45,450	철강제품(73)	50,747	인조섬유(55)	40,974

출처: KOTRA 및 한국무역협회(HS Code 2단위 기준)

6) 2009년 8~11월 중국의 월별해관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2009년 北中무역통계의 해석은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

7) 2010년 1~10월간 북한의 對中무역수지적자규모는 약 8억 7,356만 달러였다.

〈표 3〉 금액기준 북한의 상위 10대 대중수출품목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1~10)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1	광물연료(27)	170,028	광·슬랙(26)	212,691	광물연료(27)	261,426	광물연료(27)	291,210
2	광·슬랙(26)	164,006	광물연료(27)	207,550	광·슬랙(26)	140,249	광·슬랙(26)	196,708
3	편물외의류(62)	60,370	철강(72)	78,448	편물외의류(62)	93,260	편물외의류(62)	119,989
4	철강(72)	45,188	편물외의류(62)	77,296	철강(72)	72,598	철강(72)	81,907
5	어패류(03)	29,936	어패류(03)	40,000	어패류(03)	57,538	어패류(03)	51,205
6	목재목탄(44)	20,452	토석소금(25)	19,301	토석소금(25)	28,898	아연제품(79)	37,481
7	알루미늄(76)	13,638	알루미늄(76)	19,028	아연제품(79)	20,162	토석소금(25)	26,291
8	아연제품(79)	9,992	편물의류(61)	10,432	무기화합물(28)	16,224	편물의류(61)	19,582
9	전기전자(85)	8,063	전기전자(85)	10,364	과실견과(08)	15,882	전기전자(85)	18,362
10	토석소금(25)	7,485	과실견과(08)	9,127	알루미늄(76)	13,388	무기화합물(28)	12,073

출처: KOTRA 및 한국무역협회(HS Code 2단위 기준)

對中수출입품을 확인하면 2007년 이후 변함없이 對中수입은 광물연료(HS27), 일반기계(HS84), 전기전자(HS85) 등이, 對中수출은 광물연료(HS27), 광·슬랙(HS26), 편물외의류(HS62), 철강(HS72), 어패류(HS03) 등(〈표 2〉, 〈표 3〉 참조)으로 對中수입은 원유(HS27090000), 對中수출은 철광석(HS2601)과 무연탄(HS2701) 등 광물성생산품⁸⁾이 對中수출입을 주도하고 있다.

광물성 생산품 무역에서 새로운 흐름은 수입은 2003년부터, 수출은 2004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기

업의 對北투자와 함께 북한 광물성 생산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물성 생산품이 북한 전체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3.52%에서 2008년 30.44%로 현격하게 상승하였다. 그런데 2009년의 경우 광물성생산품의 무역비중이 23.37%로 급락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대중 광물연료(HS27)의 수입이 전년대비 44.2% 감소(5억 8,595만 달러에서 3억 2,708만 달러로 2억 5,888만 달러 감소)한데 기인했다(〈표 3〉 참조). 하나 특이사항은 광물연료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8) 여기서 광물성생산품이란 KOTRA의 분류에 따라 HS25(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 시멘트), HS26(광·슬랙 및 회) HS27(광물성연료, 광물유)을 합친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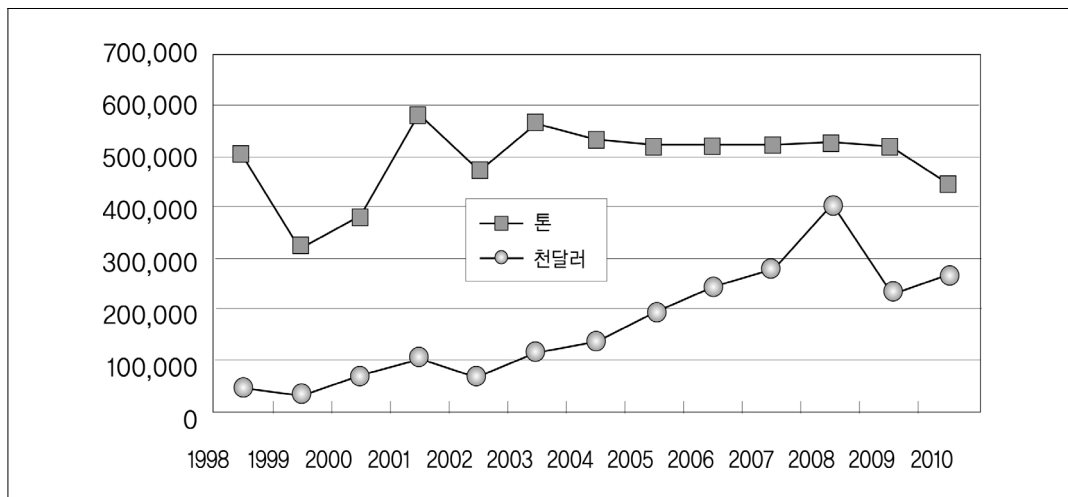
〈표 4〉 북한 광물성생산품의 무역액과 전체 수출입에서의 비중

단위: 천 달러, %

연 도	수출액			수입액			수출입액		
	광물성 생산물	전 체	점유율	광물성 생산물	전 체	점유율	광물성 생산물	전 체	점유율
1998	42,627	559,331	7.62	150,812	882,863	17.08	193,439	1,442,194	13.41
1999	26,628	514,962	5.17	141,029	964,585	14.62	167,657	1,479,547	11.33
2000	43,158	556,326	7.76	171,202	1,413,211	12.11	214,360	1,969,537	10.88
2001	50,464	650,208	7.76	231,100	1,620,291	14.26	281,564	2,270,499	12.40
2002	69,731	734,992	9.49	235,803	1,525,396	15.46	305,534	2,260,388	13.52
2003	55,518	776,992	7.15	337,952	1,614,382	20.93	393,470	2,391,374	16.45
2004	152,282	1,020,200	14.93	409,550	1,836,911	22.30	561,832	2,857,111	19.66
2005	243,666	998,392	24.41	502,444	2,003,286	25.08	746,110	3,001,678	24.86
2006	244,435	946,795	25.82	532,085	2,049,008	25.97	776,520	2,995,803	25.92
2007	349,581	918,771	38.05	491,350	2,022,306	24.30	840,931	2,941,077	28.59
2008	466,544	1,130,213	41.28	694,899	2,685,478	25.88	1,161,443	3,815,691	30.44
2009	445,727	1,062,786	41.94	352,225	2,351,032	14.98	797,952	3,413,818	23.37

출처: KOTRA

〈그림 4〉 북한의 대중 원유(HS27090000) 수입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 및 KOTRA(2010년은 1~10월 통계)

고 있는 원유(HS27090000)의 對中수입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수입(2008년 53만 톤, 2009년 52만 톤)이 이루어졌지만 수입액은 1억 7,576만 달러나 감소(2008년 4억 1,432만 달러, 2009년 2억 3,855만 달러)한 것이었다(<그림 4> 참조).

주목되는 점은 북한 광물성 생산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변화였다. 2009년에는 광물성 생산품의 對中무역 의존도가 수출입 모두 90%대를 넘어섰다. 특히 수출의 경우 7.1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시행되었던 2002년의 對중국비중은 30.6%에 불과했다(<표 5> 참조). 광물성 생산품의 對중수출을 견인한 것은 철광석(HS2601)과 무연탄(HS2701)인데, 2010년의 급격한 상승세가 주목된다(<그림 5> 참조). 이는 2003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지하자원개발형 對北투자가 광물성 생산품의 생산·수출능력을 향상시켰던 것으로 해석되며, 북한이 2009년 신년사설에서 4대 선행부문 중 이례적으로 금속공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던 배경으로 판단된다⁹⁾. 즉,

〈표 5〉 북한 광물성생산품의 對中무역액과 중국의 비중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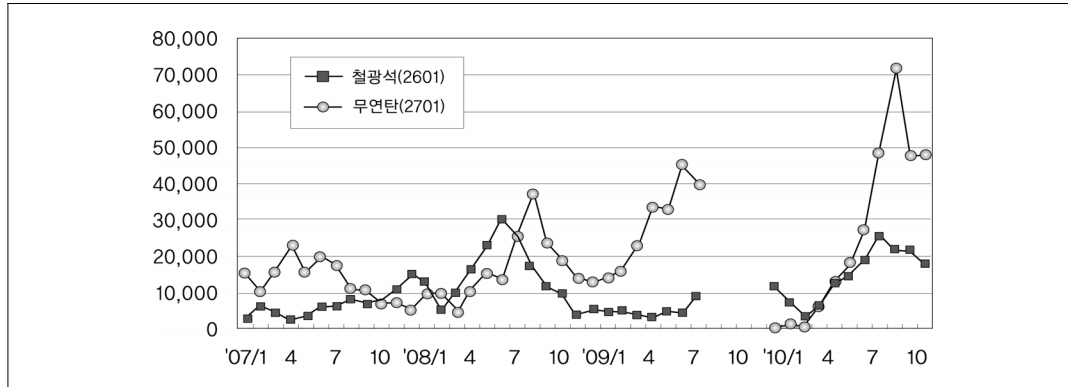
연도	광물성생산품 수출액			광물성생산품 수입액			광물성생산품 수출입액		
	중 국	전 체	점유율	중 국	전 체	점유율	중 국	전 체	점유율
1998	14,117	42,627	33.12	89,731	150,812	59.50	103,848	193,439	53.69
1999	4,918	26,628	18.47	85,163	141,029	60.39	90,081	167,657	53.73
2000	6,132	43,158	14.21	122,704	171,202	71.67	128,836	214,360	60.10
2001	11,050	50,464	21.90	164,040	231,100	70.98	175,090	281,564	62.18
2002	21,366	69,731	30.64	121,987	235,803	51.73	143,353	305,534	46.92
2003	32,926	55,518	59.31	183,201	337,952	54.21	216,127	393,470	54.93
2004	112,965	152,282	74.18	207,929	409,550	50.77	320,894	561,832	57.12
2005	205,817	243,666	84.47	291,909	502,444	58.10	497,726	746,110	66.71
2006	225,006	244,435	92.05	353,777	532,085	66.49	578,783	776,520	74.54
2007	341,519	349,581	97.69	407,871	491,350	83.01	749,390	840,931	89.11
2008	439,542	466,544	94.21	597,273	694,899	85.95	1,036,815	1,161,443	89.27
2009	430,573	445,727	96.60	332,727	352,225	94.46	763,300	797,952	96.66
2010	514,209	-	-	401,932	-	-	916,141	-	-

출처: KOTRA 및 한국무역협회(2010년은 1~10월 통계)

9) 자세한 내용은 배종렬, “北·中 間 광물성생산품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수은북한경제」, 2009년 여름, pp. 37~58 참조.

〈그림 5〉 철광석과 무연탄의 월별 대중수출 추이(2007.1~2010.10)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 2009년 8~11월 중국의 월별해관통계 미발표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금속공업의 강조는 석탄이나 철광석 생산의 가동률 제고와 함께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 운반수단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설정하기 어려운 목표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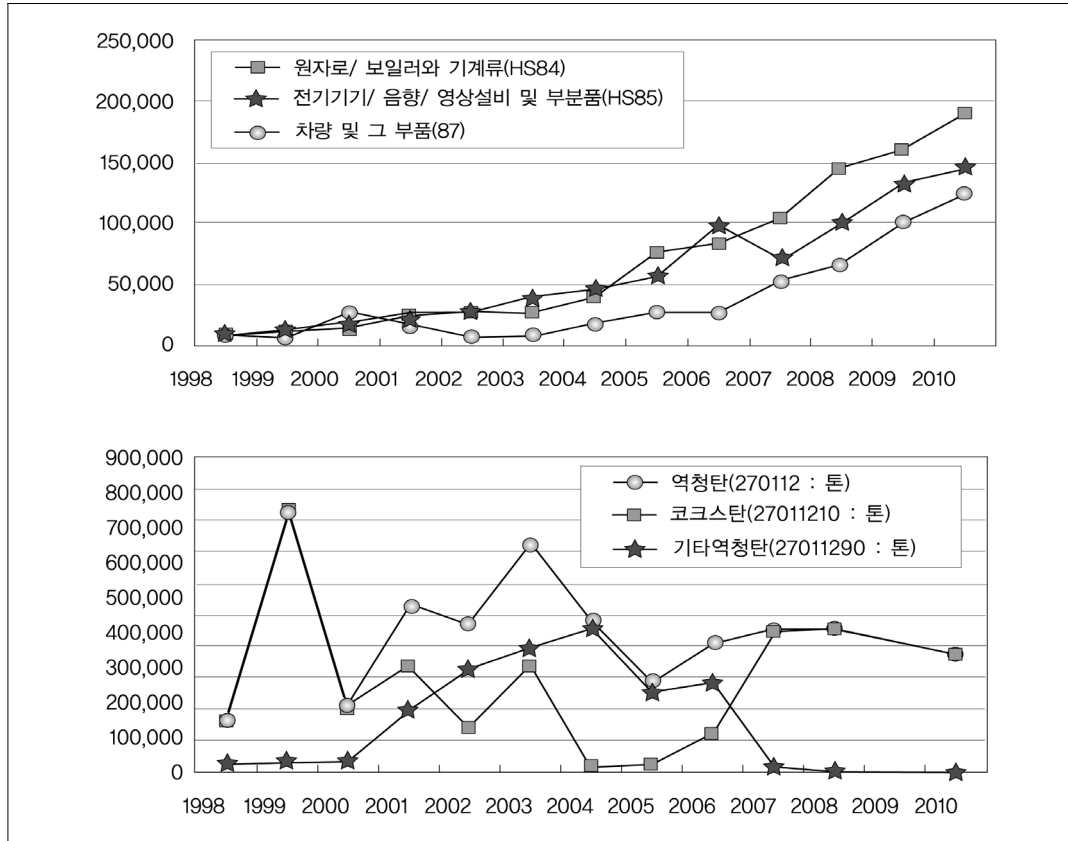
그러나 신뢰할만한 투자통계의 부족으로 중국의 대북투자가 북한의 원료, 자재, 설비, 운반수단의 수입능력을 얼마나 신장시켰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일반기계(HS84), 전기전자(HS85), 일반차량(HS87), 역청탄(HS270112) 등 몇 가지 대용지표(〈그림 6〉 참조)를

통해 파악할 때 상관관계가 있음은 확인된다¹⁰⁾. 즉, 최근 연간 이들 품목의 對中 수입액 증가폭이 높았으며, 2010년 1~10월간 북한의 對中수입액도 그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10월의 경우 주목되는 품목은 ①20톤 이상(HS87042300)을 중심으로 7,320만 달러가 수입된 화물자동차(HS8704), ②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통신기(HS85171210)를 포함 4,557만 달러가 수입된 전화기 등 유무선통신기기(HS8517), ③램, 롬

10) 예를 들어 북한 무산광산의 가동률 제고는 2003년 연변천지공무유한공사(延邊天池工貿有限公司)를 통해 시작된 중국의 무산광산투자가 결정적이었다. 중국의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과 협상이 진행될 무렵 무산광산은 채굴량의 증대, 경제난에 의한 전력부족, 채광·운광·선광 관련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평균가동률이 30%이하였으며 잔존매장량중 노천채굴대상도 설비·부품의 부족, 채굴연선길이의 미확보, 선광공장의 낙후 등으로 연 정광 200만 톤(원광석 660만 톤)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콕스탄의 대중수입도 중국의 대북투자가 성사된 2006년부터 증가세로 바뀌었다(위의 글, pp. 54~55).

〈그림 6〉 기계, 전기, 차량, 역청탄 등의 對中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2010년은 1~10월 통계)

등 주기억장치(HS84717010)를 중심으로 4,559만 달러가 수입된 자동차료처리기계(HS8471) 등이었다.

3. 중국 성별 역학구조의 변동

최근 北·中경제관계의 진전에서 또 하나 드러나는 특징은 비동북삼성지역의 지속적 부상과 길림성(吉林省)의 전

략적 위상변화였다. 우선 북한의 對中수입에서 차지하는 동북삼성의 위상은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對中수출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7.1경제관리조치가 시행될 무렵 90%대였던 동북삼성의 위상은 2004년에는 80%대로, 2005년에는 70%대로, 2007년에는 60%대로, 그리고 2010년 1~10월 기간에는 50%대로 하락했다

〈표 6〉 북한의 대동북삼성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중 무역	전체	738,172	1,022,927	1,385,206	1,580,243	1,536,806	1,973,974	2,787,279	2,680,734	2,688,064
	수입	467,309	627,583	799,503	1,081,103	1,117,990	1,392,453	2,033,233	1,887,686	1,780,814
	수출	270,863	395,344	585,703	499,140	418,816	581,521	754,046	793,048	907,250
동북 삼성 합계	전체 (무역비중)	580,691 (78.67)	785,512 (76.79)	1,004,202 (72.49)	1,061,227 (67.16)	1,005,146 (65.40)	1,360,317 (68.91)	2,106,327 (75.57)	-	1,748,726 (65.06)
	수입 (수입비중)	327,373 (70.05)	412,729 (65.76)	507,066 (63.42)	707,189 (65.41)	702,633 (62.85)	982,835 (70.58)	1,567,778 (77.11)	-	1,236,680 (69.44)
	수출 (수출비중)	253,318 (93.52)	372,783 (94.29)	497,136 (84.88)	354,038 (70.93)	302,513 (72.23)	377,482 (64.91)	538,549 (71.42)	-	512,046 (56.44)

출처: 무역협회(2010년은 1~10월 통계)

〈표 7〉 금액기준 북한수출의 상위 6대성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02		2004		2007		2008		2009		2010(1~10)	
	성	금액	성	금액	성	금액	성	금액	성	금액	성	금액
1	요령성	217,797	요령성	389,366	요령성	260,333	요령성	343,215	-	-	요령성	384,980
2	길림성	33,502	길림성	105,204	길림성	116,675	길림성	194,207	-	-	산둥성	205,967
3	광둥성	7,896	강소성	35,961	산둥성	97,759	산둥성	105,455	-	-	길림성	126,805
4	강소성	3,019	산둥성	25,312	강소성	41,123	강소성	60,261	-	-	하북성	95,380
5	산둥성	2,867	절강성	8,226	하북성	32,510	사천성	19,078	-	-	강소성	66,690
6	흑룡강성	2,019	호남성	6,350	사천성	9,929	하북성	16,747	-	-	천진	19,596

출처: KOTRA 및 한국무역협회(HS Code 2단위 기준)

(〈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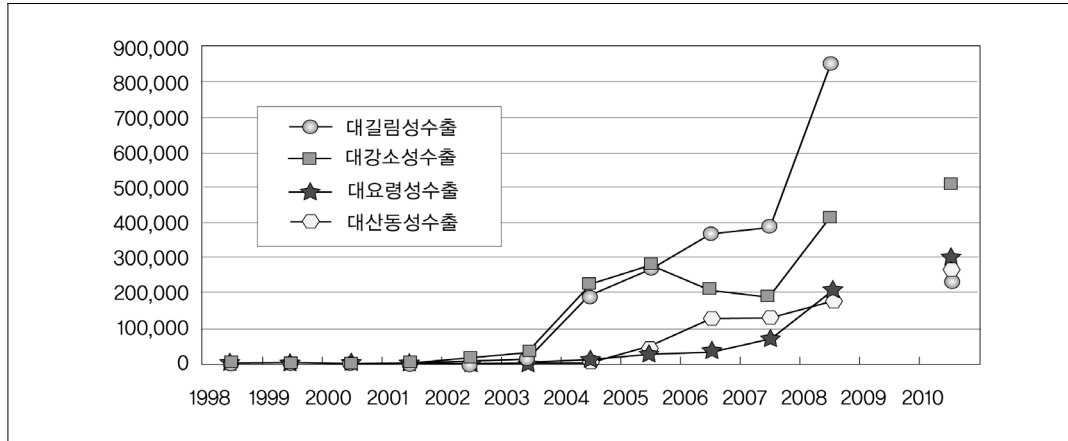
비동북삼성지역의 위상 상승은 2004년 북한의 對강소성(江蘇省) 및 산둥성(山東省) 수출의 증대로부터 시작됐다¹¹⁾.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산둥성의 약진이었

다. 2010년 길림성을 제치고 對中수출 2위 자리를 획득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표 7〉 참조). 북한의 對산둥성 수출을 견인한 것은 무연탄(HS2701)과 철광석(HS2601)이었다. 그런데 길림성의 부

11) 강소성은 2002년부터 북한의 무연탄과 철광석 수입에 나섰으며, 산둥성은 2001년부터 북한의 무연탄 수입에 나섰다.

〈그림 7〉 북한 철광석(HS2601)의 對길림성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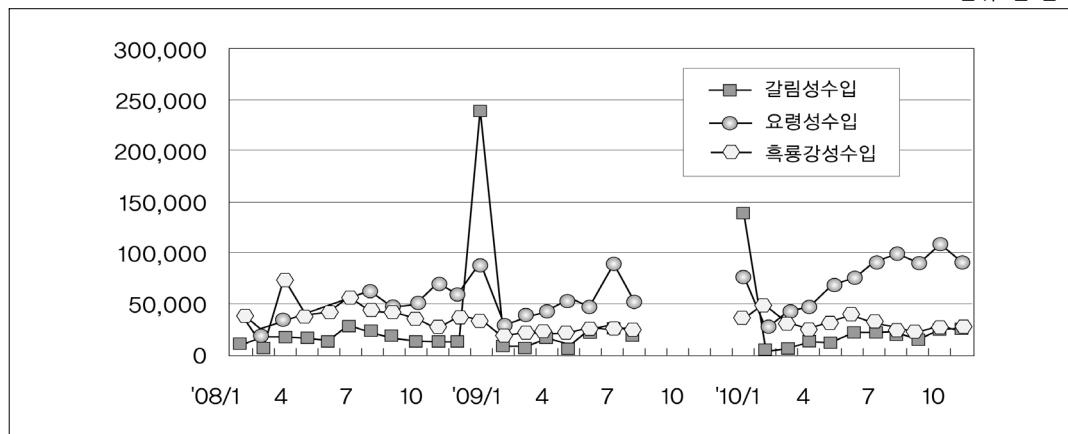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2010년은 1~10월 통계)

* 2009년 8~11월 중국의 월별해관통계 미발표

〈그림 8〉 북한의 對동북삼성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 2009년 8~11월 중국의 월별해관통계 미발표

진은 〈그림 7〉에서 보듯이 철광석의 對中수출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했다. 반면 강소성, 요령성, 산둥성 등에 대한 북한의 2010년 1~10월간 철광석수출은

모두 상승추세를 보여 주었다.

길림성의 전략적 위상변화는 1억 달러대의 북한의 對길림성수출이 발생한 2004년부터 그 맹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 8〉 북한의 對中 10대 수입품목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2	2009.12
1	석유·석탄	석유 0·석탄	석유·석탄	석유·석탄	석유·석탄	편물의류	석유·석탄
2	육류	육류	육류	육류	기계·컴퓨터	의류(편물외)	편물의류
3	곡물	전기제품	기계·컴퓨터	전기제품	전기제품	석유·석탄	기계·컴퓨터
4	전기제품	철강	전기제품	기계·컴퓨터	플라스틱	플라스틱	전기제품
5	기계·컴퓨터	기계·컴퓨터	플라스틱	플라스틱	차량·부품	완구·운동구	방직섬유제품
6	플라스틱	플라스틱	곡물	필라멘트섬유	필라멘트섬유	가죽제품	의류(편물외)
7	철강	차량·부품	철강	차량·부품	육류	기계·컴퓨터	동식물성유지
8	어류	필라멘트섬유	필라멘트섬유	철강	철강	가구	곡물
9	필라멘트섬유	곡물	차량·부품	제분	곡물	스테이플섬유	차량·부품
10	비료	철강제품	철강제품	유지	동물성제품	단백질류	플라스틱

출처: KOTRA 및 한국무역협회(HS Code 2단위 기준)

그렇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은 것은 對길림성수출이 아니라 對길림성 수입이었다. 첫 번째 관심은 2008년 12월에 통관된 4.3억 달러의 對中수입액이었다. 김정일 체제가 공식 등장한 1997년 이후 극히 이례적 月수입액인 4.3억 달러의 對中수입을 주도한 곳은 對中 주 수입창구인 요령성과 흑룡강성이 아니라 길림성이었으며¹²⁾, 그 품목도 생산용 자재·부품이 아닌 최종소비재로서 과거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과는 현저하게 다른 품목들로 구성되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중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었다(〈그림 8〉과 〈표 8〉 참조).

예를 들어 HS품목분류기준으로 12월에만 500만 달러 이상이 수입된 품목은 ①재킷(HS610433), 스커트(HS610453), 긴바지(HS610463) 등 합성섬유제의 여성용바지(HS6104) 2,054만 달러, ②낙싯바늘(HS950720) 1,842만 달러, ③면제(HS611020) 및 인조섬유제(HS611030)의 저지·폴 오버·코트(HS6110) 1,593만 달러, ④조제글루와 기타조제접착제(HS3506) 1,367만 달러, ⑤가죽벨트 및 띠(HS42033010) 1,281만 달러, ⑥기타방직용 섬유제의 티셔츠·조끼(HS610990) 1,063만 달러, ⑦지우개(HS401692) 1,042만 달러, ⑧이불·베개(HS940490) 999

12) 배종렬, “국제금융위기와 북한경제의 진로: 광명성 제1·2호 발사 전후시점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2009년 여름, 제9권 제2호(통권34호), pp. 215~216 참조.

만 달러, ⑨합성섬유제 기타양말(HS 611596) 762만 달러, ⑩문·창문(HS392520) 및 저장기·탱크(HS392510) 등 건축용품(HS 3925) 717만 달러, ⑪절첩식 우산(HS 660191) 645만 달러, ⑫인조모피 제품(HS4304) 627만 달러 등이었다¹³⁾. 두 번째 관심은 2009년 8~11월간에 전개되었던 北中경제관계였다. 동기간 중 ‘장길도’의 국무원 비준(2009. 8. 30), 온가보(溫家寶) 총리의 방북(2009. 10) 등이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월별해관통계가 이례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그 연유와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었다. 다만 <그림 8>에서 보듯이 2009년 12월 길림성의 수입통계는 2008년 12월 길림성의 수입통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2009년 12월 북한의 對길림성 수입은 1억 3,923만 달러로 전체수입액(3억 1,480만 달러)의 44.23%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수입액(4억 3,121만 달러)의 55.92%(2

억 4,114만 달러)를 차지했던 2008년 12월의 북한의 對길림성 수입액을 상기시킨다. 2009년 12월 길림성창구를 통해 HS2단위 기준으로 500만 달러 이상 수입된 주요품목으로는 ①편물의류(HS61) 3,232만 달러, ②편물외의류(HS62) 1,385만 달러, ③방직섬유제품(HS63) 1,327만 달러, ④완구제품(HS95) 957만 달러, ⑤플라스틱제품(HS39) 639만 달러, ⑥모자(HS65) 585만 달러, ⑦편물(HS60) 543만 달러, ⑧곡물(HS10) 510만 달러였다¹⁴⁾.

4. 변경경제개발구의 건설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중국의 對두만강지역 개발전략의 완결판, ‘장길도’ 건설이었다. 2009년 11월 18일 국내외 언론보도 발표회를 통해 정식반포된 ‘장길도’는 장춘시와 길림시의 일부지역, 그리고 연변조선족

13) 500만 달러이하지만 ①트렁크·슈트케이스·서류가방(HS4202) 481만 달러, ②아이스·롤러스케이트(HS950670), 축구공(HS95066210) 같은 운동용구(HS9506) 459만 달러, ③사무실·책상용 비품(HS830400) 441만 달러, ④1500~2500cc 승용자동차(HS870323) 434만 달러, ⑤유리제품(HS7013) 411만 달러, ⑥모포 및 여행용러그(HS6301) 368만 달러, ⑦안경(HS9004) 352만 달러, ⑧모자걸이·브래킷(HS830250) 312만 달러, ⑨비누(HS3401) 395만 달러, ⑩소매용 조제세제 및 청정제(HS340220) 267만 달러, ⑪사무용품 및 학용품(HS392610) 261만 달러, ⑫흡연용 담배(HS240310) 232만 달러, ⑬손수건(HS6213) 219만 달러, ⑭장갑류(HS6116) 218만 달러 등도 주목되는 품목이었다.

14) 2008년 12월에는 ①편물의류(HS61) 5,533만 달러, ②편물외의류(HS62) 2,983만 달러, ③완구제품(HS95) 2,070만 달러, ④플라스틱제품(HS39) 2,058만 달러, ⑤가죽제품(HS42) 1,473만 달러, ⑥단백질류(HS35) 1,341만 달러, ⑦고무제품(HS40) 1,118만 달러, ⑧가구제품(HS94) 754만 달러, ⑨비금속제품(HS83) 610만 달러, ⑩우산제품(HS66) 585만 달러, ⑪인조스테이플섬유(HS55) 552만 달러, ⑫방직섬유제품(HS63) 516만 달러였다.

자치주가 그 대상으로 그 개발구도는 훈춘을 창구로, 연길·용정·도문(연룡도)를 최전방으로, 장춘·길림을 엔진으로, 동북후배지를 버팀목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길림성의 ‘장길도’는 요령성의 료령연해경제대발전기획(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 이하 ‘요령연해경제벨트’로 약칭)이나 흑룡강성의 하다치(하얼빈-대경-치치할)공업회랑지대(이하 ‘하다치공업벨트’로 약칭)와는 달리 변경경제개발구로서의 성격이 강해 그 성장전망은 북한 및 러시아 항만으로의 출해구 확보가 관건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우선 ‘장길도’개발계획의 주요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다. ‘장길도’개발계획은 ① 자체 내부건설계획(공간배치, 산업발전, 기반시설, 환경보호) ②중국 국내 기타 지역과의 연동개발계획, ③두만강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에의 참여, ④건설가속화의 보장장치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TRADP 참여계획에 ①러시아 및 북한과 인접지구의 기반시설건설 협력(항구, 철도, 도로, 교량 등), ②中蒙 골든루트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것이 바

로 그것이였다¹⁵⁾.

‘장길도’건설에 있어서 출해구의 중요성은 또한 ‘장길도’ 발표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작성한 “선도구전망계획요강”관련 대외통로부분의 12개 프로젝트(투자액: 173.5억 위안)에서도 확인되는데, 동 프로젝트는 ①팔도(八道)-삼합(三合)-청진 고속도로(28억 위안), ②훈춘-권하(圈河)-라진 고속도로(23억 위안), ③화룡(和龍)-남평(南平)-청진 고속도로(30억 위안), ④훈춘-장령자(長嶺子)-블라디보스톡 고속도로(8억 위안), ⑤도문-남양(북한)-두만강(북한)-하산(러시아)철도합작 개보수(24.3억 위안), ⑥中北(도문-청진) 청진철도합작개보수(청진항 사용: 20억 위안), ⑦화룡-남평-무산(북한) 철도(16억 위안), ⑧도문-라진 철도합작개보수(12.7억 위안), ⑨룡정(龍井)·개산툰(開山屯) 철도통상구건설(1.5억 위안), ⑩권하, 도문, 사타자(沙陀子), 개산툰, 삼합, 남평 통상구 교량건설(5억 위안), ⑪훈춘, 춘화, 분수령 통상구건설(2억 위안), ⑫중·러 인접지역 교통기초시설합작(훈춘철도통상구 확건: 3억 위안)으로 구성되었다¹⁶⁾.

15) 우하오(Wu hao), “창치투(長吉圖)개발개방선도구와 대 두만강(圖們江)지역협력개발과의 관계,” 「대두만강 개발계획과 환동해권지역의 발전전략」, 강원발전연구원·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주최 한-중 세미나, 2010. 4. 7, pp. 26~29.

16) 자세한 사항은 배종렬,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2010년 여름호, 수출입은행, pp. 4~6 참조.

2009년 8월말 ‘장길도’의 중국 국무원 승인이후 대외통로 확보를 위한 중국의 북한·러시아간 연계인프라구축노력은 첫째는 향후 무산광산에 대한 대규모투자를 대비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 화룡-남평간 철도공사착공식 진행(2009. 9. 1, 41.68km, 11억 9천만 위안), 둘째는 2009년 10월 중국 온가보 총리 방북시 북·중간 체결한 협정에 따라 2010년 4월 12일부터 북한관광의 허용(2010. 3. 2, 국가관광국), 셋째는 對 나진항 물류시스템개선을 위한 중국 권하-북한 원정간 다리보수공사의 착공(2010. 3. 15, 360만 위안)과 완공(2010년 6월말)¹⁷⁾, 넷째는 연변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를 중심으로 한 도문경제개발구 조선공업단지건설¹⁸⁾과 함께 연변 해화수출입무역유한회사(延邊海華輸入貿易有限會社)를 통한 청진항 확보¹⁹⁾, 다섯째 중러간 철도인 훈카철도의 연내 운행회복과 자루비노항 개조사업 완수²⁰⁾ 등 북한 북부지역에 집중되었다.

Ⅲ. 北中경제관계의 쟁점과 평가

1. 北中경협의 개혁·개방 유도성

천안함사건(2010. 3)을 계기로 韓中의 對北정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서 北中경제관계의 심화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국내에서 강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對중국 경제의존 심화, 북한 전략자원의 선점, 韓中간 對北경제협력의 상호대체성 등을 지적하는 국내의 시각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유도 등 北中경협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분석은 별로 없는 반면 한국에 불리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²¹⁾. 또한 중국 편향의 무역구조 심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北中경제관계의 여러 특성은 북한의 개혁

17) 훈춘-나진-청진-중국 남방을 연결하는 국내무역화물 다국운송통로, 즉 중국 동북지역의 화물이 나진, 청진 등 북한 항만을 통해 중국 남방으로 수출될 경우 수출입화물이 아닌 국내화물로 간주하는 물류루트는 국가해관총서가 2010년 3월 16일 정식비준하였으며, 8월 4일에는 국가해관총서와 교통부가 이에 대한 공시를 발표했다(연변일보, “해상통로건설 실질적 진척 이룩,” 2010. 11. 15).

18) 연변일보, “도문 조선공업단지건설 순조롭게 진척,” 2010. 10.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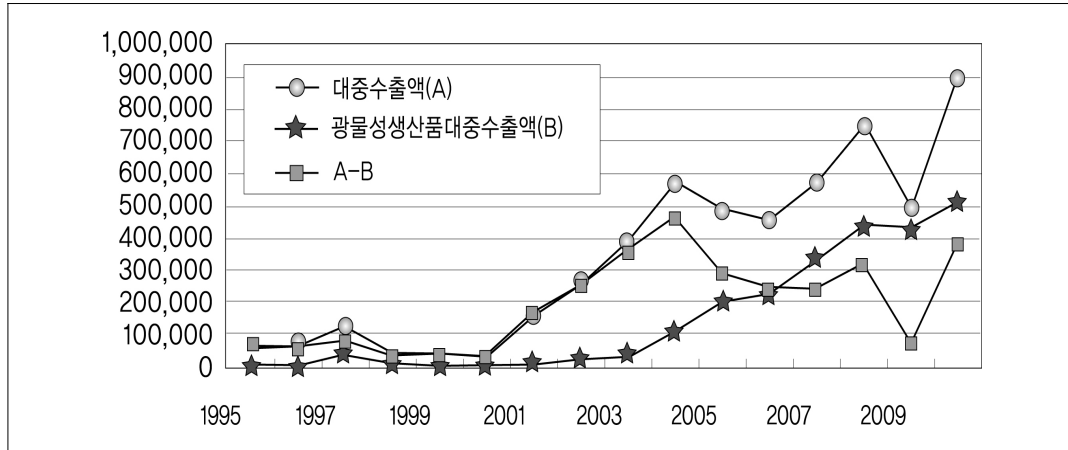
19) 연변일보, 2010. 7. 6 및 연변일보, “도문-청진-부산국제련합수송항성대상 본격 추진,” 10. 14 참조.

20) 연변일보, “도문 통로건설로 연륙도일체화 추진,” 2010. 8. 31 참조.

21) 김강일, “북-중경협이 남북정치안보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북-중경협시대의 한국의 대북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한중세미나, 2010. 10. 28, pp. 27-40 참조.

〈그림 9〉 광물성생산품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수출(A-B) 추이

단위: 천 달러



출처: KOTRA 및 한국무역협회(2010년은 1~10월 통계)

· 개방유도에 北中경제협력의 강화가 미친 영향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2001년부터 북한의 對中수출이 상승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對北경제관계의 강화가 對北수입보다는 對北수출에 바탕을 두고 있고, 중국의 對北광물성생산물 수입을 제외할 경우 2004년을 정점으로 북한의 對中수출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9〉 참조). 이는 중국의 對北경제협력의 성격이 가공도의 제고가 없는 단순 지하자원수입형으로 북한경제의 국제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30%이하의 공장가동률 등 북한경제의 낮은 수용능력과 對北투자 및

설비자재 제공형 보상무역방식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對北경제협력이 북한경제의 수출능력 신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기계(HS84), 전기전자(HS85), 일반차량(HS87), 역청탄(HS270112) 등 북한의 對中수입액이 지속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그림 6〉 참조), 2010년 1~10월간 월별 對中수출액이 과거와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는 점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韓中間 對北경제협력의 상호대체성

2010년 1~10월간 북한의 對中수출을 견인한 HS 2단위 기준 100만 달러 이상

〈표 9〉 2010년 1~10월간 100만 달러이상 對中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HS코드 2단위 기준)	2008	2009	2010(1~10)
1	광물연료(HS27)	207,550	261,426	291,210
2	광·슬랙(HS26)	212,691	140,249	196,708
3	편물외의류(HS62)	77,296	93,260	119,989
4	철강(HS72)	78,448	72,598	81,907
5	어패류(HS03)	40,000	57,538	51,205
6	아연(HS79)	4,434	20,162	37,481
7	토석·소금(HS25)	19,301	28,898	26,291
8	편물의류(HS61)	10,432	8,806	19,582
9	전기기기(HS85)	10,364	8,710	18,362
10	무기화합물(HS28)	5,950	16,224	12,073
11	알루미늄(HS76)	19,028	13,388	10,055
12	과실·견과류(HS08)	9,127	15,882	3,883
13	연(HS78)	4,770	2,658	3,836
14	목재·목탄(HS44)	7,712	9,369	3,599
15	동(HS74)	2,356	2,073	3,266
16	일반기계(HS84)	447	443	3,263
17	유리(HS70)	2,133	2,021	3,131
18	채소(HS07)	1,956	1,995	2,786
19	채유용종자·인삼(HS12)	2,520	6,706	2,552
20	니켈(HS75)	3,771	2,981	2,080
21	철강제품(HS73)	95	175	1,892
22	비누·계면활성제(HS34)	341	5,936	1,846
23	특수직물(HS58)	1,198	1,656	1,821
24	플라스틱(HS39)	3,406	2,166	1,752
25	귀석(HS71)	1,982	36	1,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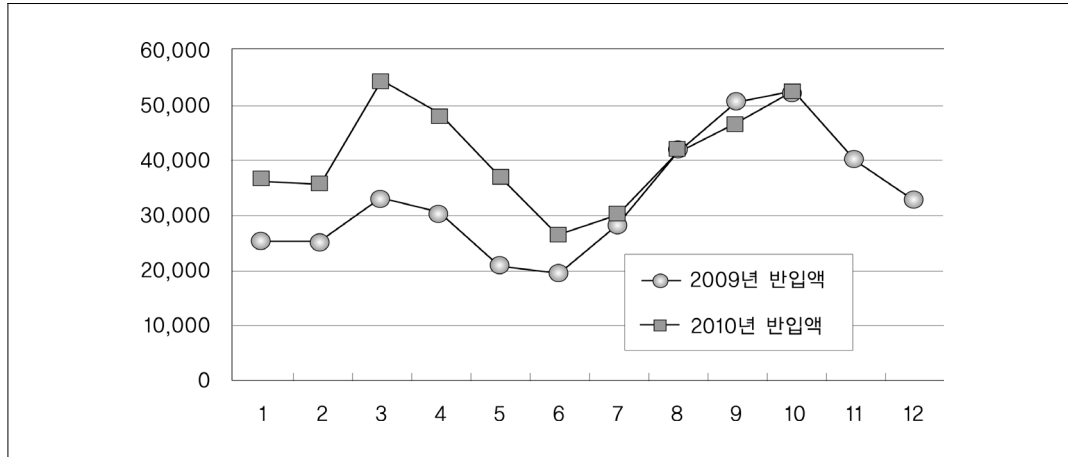
출처: KOTRA 및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으로서 2008~2009년 연말수준을 능가한 품목은 ①2억 9,121만 달러의 광물연료(HS27), ②1억 1,999만 달러

의 편물외의류(HS62), ③8,191만 달러의 철강(HS72), ④3,748만 달러의 아연제품(HS79), ⑤1,958만 달러의 편물의

〈그림 10〉 2010년 섬유제품의 전년대비 월별 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출처: 통일부

류(HS61), ⑥1,836만 달러의 전기기기(HS85), ⑦327만 달러의 동제품(HS74), ⑧326만 달러의 일반기계(HS84), ⑨313만 달러의 유리제품(HS70), ⑩279만 달러의 식용채소(HS07), ⑪189만 달러의 철강제품(HS73), ⑫182만 달러의 특수직물(HS58) 등인데(〈표 9〉 참조), 여러 품목에서 남북교역과 상호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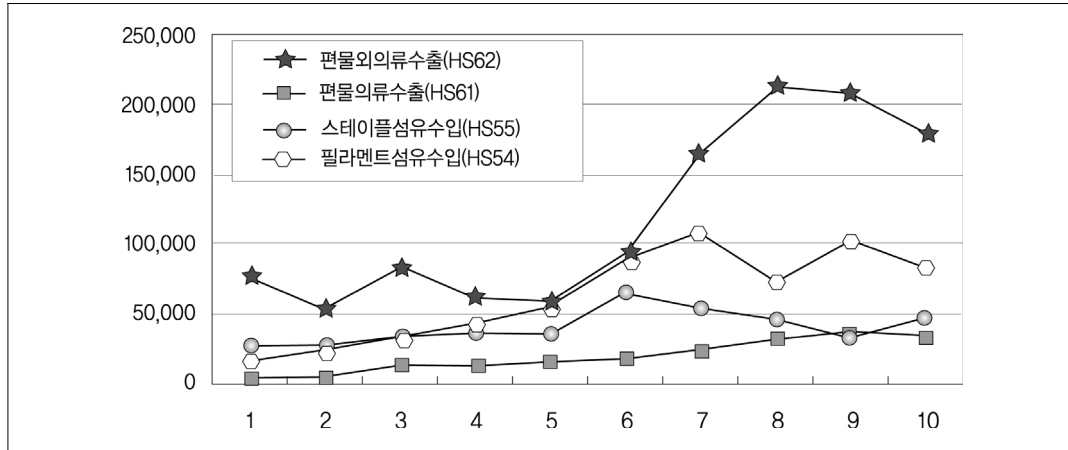
예를 들어 섬유제품의 對南반출은 〈그림 10〉에서 보듯이 2010년 6월부터 이상기류를 보인 반면, 북한의 對中의류수출은 편물외의류(HS62)와 인조·합성의류를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주었다(〈그림 11〉 참조). HS품목분류 8단위 기준으로 300만 달러 이상 수출된

품목은 ①인조섬유제 아노락·윈드치터(HS62019390) 1,943만 달러, 면제 아노락·윈드치터(HS62019290) 560만 달러, 양모·섬수모제 아노락·윈드치터(HS62019100) 303만 달러 등 남성용 의류(HS6201), ②인조섬유제 아노락·윈드치터(HS62029390) 1,077만 달러, 합성섬유제 아노락·윈드치터(HS62029310) 459만 달러, 합성섬유제 오버코트(HS62021310) 415만 달러 등 여성용 의류(HS6202), ③합성섬유제 재킷·블레이저(HS62033300) 873만 달러, 합성섬유제 트라우저·브릿지(HS62034390) 751만 달러, 면제 트라우저·브릿지(HS62034290) 345만 달러 등 남성용 의류(HS6203), ④합성섬유제 재킷·블레이저(HS62043300)

〈그림 11〉

2010년 북한 의류산업의 對中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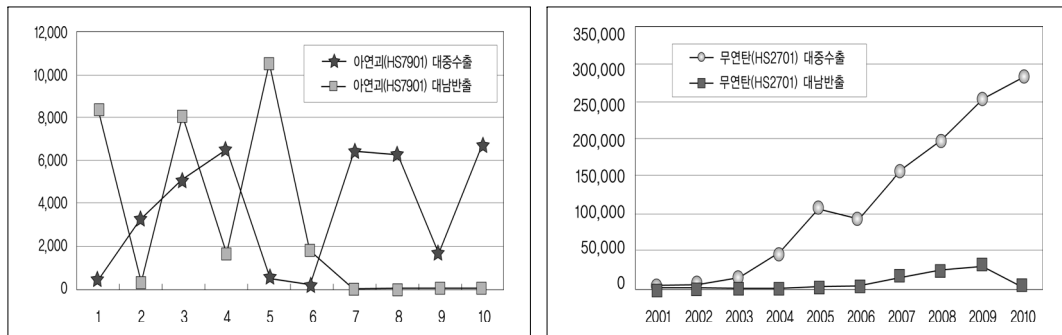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그림 12〉

2010년 북한 아연괴와 무연탄의 對南반출과 對中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및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0년은 1~10월 통계)

521만 달러, 합성섬유제 트라우저·브릿지(HS62046300) 353만 달러 등 여성용 의류(HS6204), ⑤면제 티셔츠·싱글리트·조끼(HS61091000) 543만 달러, 인조섬유제 저지·폴오버·카디건(HS61103000) 350만 달러 등 기타의류제품이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품목은 북한 아연괴

(HS7901)와 무연탄(HS2701)의 對南반출과 對中수출동향이었다. 북한 아연괴의 對南반출은 2010년 7월부터 중단되었지만, 2010년 7~10월간 對中수출은 2,121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 對요령성 수출이 98%(2,081만 달러)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길림성과 강소성이었다.

북한 무연탄의 對南반출은 2010년 1~10월간 283만 달러에 불과해 2009년 수준 3,046만 달러에 태부족한 반면, 對中수출은 2010년 7월부터 월 4,000만 달러대를 유지하면서 2010년 1~10월간 2억 8,583만 달러로 2009년 수준을 이미 능가했다(<그림 12> 참조).

3. 비경제적 요인의 작용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北中경제협력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였다. 첫째는 ‘장길도’의 경제성 문제였다. 길림성의 ‘장길도’는 요령성의 ‘요령연해경제벨트’나 흑룡강성의 ‘하다치공업벨트’와는 달리 그 위상이 변경경제개발구로 설정되었다. 달리 말해 북한 및 러시아항만으로의 출해구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길림성을 중심으로 통관된 2008년 12월과 2009년 12월 두 차례의 이례적 월수입액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시장수요를 월등히 증가하는 금액으로 그 용도는 한반도 불안정을 우려한 중국의 대북지원성 물자이거나 북한의 후계체제 등 선군사상의 강

화와 관련된 물자로 추정되는 품목이었다. 예를 들어 ①2008년 12월 1,842만 달러, 2009년 12월 925만 달러가 수입된 낚싯바늘(HS950720)은 1998~2007년간 어망그물 등을 합친 낚시용구(HS9507) 연 수입의 최고치가 37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②2008년 12월 6,350만 달러, 2009년 3,331만 달러가 수입된 편물의류(HS61)와 2008년 12월 4,172만 달러, 2009년 12월 1,527만 달러가 수입된 편물외의류(HS62)도 과거 1998~2007년간 연수입 최고치가 각각 2,379만 달러, 1,918만 달러에 불과했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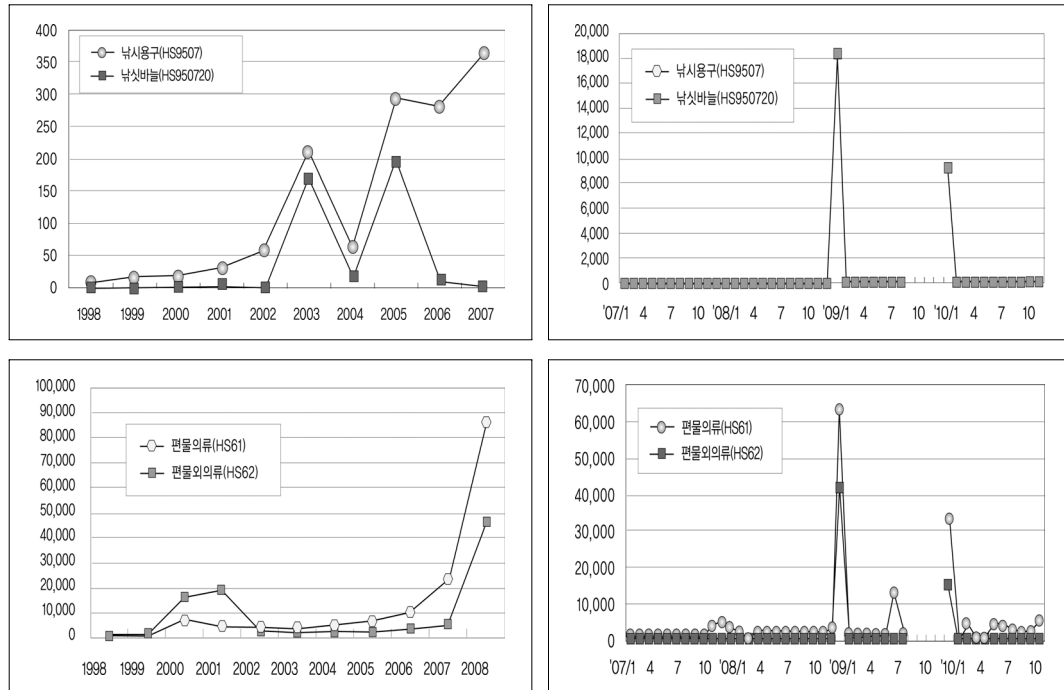
셋째는 중국 중앙정부와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정책이었다. 원래 중국의 대두만강개발지역은 1992년 이후 소삼각인 훈춘이 중심축이었다. 1999년 연길을 중심으로 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중국측 두만강계획범위에 포함되었지만²²⁾, 중앙정부 및 길림성의 지원은 소극적이었다. 2003년 말 路港區一体化(도로·항만·지역일체화)계획²³⁾, 그리고 2005년 9월 장춘중시의 새로운 중국의 대두만강지역개발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연길을 중심으로 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경제는 중국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22) 길림신문, “국무원 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요강 정식 비준”, 2009. 11. 18.

23) 배종렬,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2010년 여름호, 수출입은행, p. 18 참조.

〈그림 13〉 낚시바늘(HS950720)과 의류(HS61, 62)의 對中수입

단위: 천 달러



출처: 무역협회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백두산관광권의 길림성 이전 (2006)²⁴⁾, 백두산공항의 개통(2008)²⁵⁾, 100만 신도시 건설계획 등 중국의 對백두산 정책의 여파였다. 연길경제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백두산관광이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연길을 중심으로 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자력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중국의 對두만강개발지역에 장춘, 길림이 포함된 것도 변수였

24) 2006년 8월경 길림성정부는 장백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를 장백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로 조정했는데, 그 내용은 “장백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는 성정부의 파출기구로 정청급편제, 성정부를 대표해 법에 의해 관리구역내의 경제와 사회 행정사무 및 삼림, 초원, 토지,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실시”하며, “시(주)정부와 상당한 행정관리직권을 가지며 성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위탁한 부분 경제사회 및 행정사무 관리직능과 권한을 향유한다. 성정부에서는 장백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를 시(주)급으로 대하고 관리한다”는 것이었다(길림신문, “장백산관위회 정청급으로 진급,” 2006. 8. 3 및 연변일보, “장백산관리위원회 청급으로 승격, 2006. 8. 14).

25) 백두산공항은 2008년 8월 3일 통항을 시작하여 2010년 9월 현재 북경, 장춘, 심양, 연길 등 4갈래의 항공편을 개설하였으며, 향후 광주, 상해, 홍콩(향항) 등의 직항편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길림신문, “장백산인구 100만명 풍경구 겨냥,” 2010. 9. 2).

다. 이에 따라 훈춘-연길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對두만강지역개발의 중심축이 훈춘-장춘·길림축으로 바뀌게 된 점이였다. 특히 ①연룡도구상에 의한 연길-용정-도문의 합병, ②연변시 구상²⁶⁾, ③장춘·길림과 훈춘간 고속철 구상, ④훈춘의 길림성 특별시화 움직임 등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었다.

넷째는 중국식 문화론의 정치경제학이었다. 2002년 동북진흥계획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北中경제관계를 강화하면서 장백산문화론의 강화²⁷⁾, 만리장성

동단의 조작(기존 산해관에서 단동 호산성으로)²⁸⁾, 연장성의 동단과 한사군 위치의 청천강 확장 등 유사시 북한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었다. 일례로 북한은 사회과학원학보 등을 통해 한4군과 고구려 등에 관한 특집을 포함, 중국 동변과 백두산관할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등의 논문을 실어 동북진흥계획이 시작된 초기부터 중국의 논리에 학술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²⁹⁾.

- 26) 2010년 3월 6일 중국 리룡회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은 전인대 길림대표단 분조심의에서 ‘장길도계획요강’의 시험선행(先行先試)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연변시로 조정할 의사를 표명했는데, 연변시는 산하에 3개구와 5개 현시를 두며, 연룡도를 120만명 규모의 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길림신문, “연변 《주》를 연변 《시》로 만들려고 한다,” 2010. 3. 9).
- 27) 1998년 6월 중국정부는 국무원비준을 거쳐 길림성정부에 대해 백두산천지를 장백산천지로 바꾸고 공개출판된 지도에도 바뀐 명칭을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1999년 1월 중국지도출판사에서 나온 중국지도집 제2판부터는 백두산천지가 장백산천지로 바뀌어 기재되었다. 장백산 문화론의 학술적 논리는 “중국의 역대왕조가 장백산을 관할해 왔으므로 장백산문화 역시 중화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는 백두산의 전략적·역사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중국정부의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길림성 공산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인 장복유(張福有)가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 회장을 맡아 각 지역에서 장백산문화연구회를 조직하도록 독려하고 장백산문화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윤휘탁,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야욕,” 「시사인」, 2009. 12. 31).
- 28) 2009년 9월 25일, 온가보 총리가 방북하기에 앞서 중국 국가문물교류국은 만리장성의 동단을 기존 산해관에서 단동 호산성(虎山城)으로 당기는 작업의 일환으로 ‘만리장성의 동단기점: 호산’이라고 명명하는 표지개막식을 거행했다(연합뉴스, “中 잇단 만리장성 늘리기 속셈은?,” 2009. 9. 27).
- 29) 2002년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시작된 이후 북한 사회과학원학보는 2003~2005년 기간, 2004년 말 한4군과 고구려 등에 관한 특집을 포함 ①진나라만리장성의 동단1, 2, ②만조선왕조 성립연대에 대한 재검토, ③후부여의 초기수도과 후기수도, ④고려가 계승한 고구려적인 승격에 대하여, ⑤고구려의 역사적지위에 대한 문헌사적 고찰, ⑥고대와 중세초기 중국의 동변에 대한 고찰1, 2, 3, 4, ⑦고대국가: 구려 등 중국측의 역사논리에 대응하는 논문을 집중 게재하는 한편, 2006년부터는 ①고구려사는 조선민족사의 주요구성부분1, 2, 3, 4, ②삼국시기 신라불건국가의 건국년대에 대한 재고찰, ③백두산은 조선의 조종의 산이며 조선민족의 령산이다, ④백두산은 고려시기에도 변함없는 조선민족의 성산1, 2 ⑤진국, 진왕, 진한에 관한 몇 가지 문제1, ⑥평양천도의 력사적 경위에 대하여 등을 통해 중국의 장백산문화론의 확산도 경계했다.

Ⅳ. 맺음말

최근 보다 심화되고 있는 北中경제관계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성이 의심스러우며, 남북경제관계와의 상호대체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경제적요인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北中경제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장길도’ 개발과 그것이 북한에 주는 함의였다. ‘장길도’, 즉 변경경제개발구 건설에 투영된 중국의 對北전략구도는 방향만 다를 뿐 과거 일본이 만주의 중심이었던 봉천(현 심양)을 버리고 장춘을 수도로 선택하면서 조선북부 3항(청진항, 나진항, 웅기항)의 인프라정비를 통해 만주국을 건설했던 전략³⁰⁾을 연상시킨다는 점이었다.

달리 말해 ①동북삼성 및 내몽골의

중심은 요령성 심양이지만 장춘을 중시하면서 요령성의 ‘요령연해경제벨트’, 길림성의 ‘장길도’, 흑룡강성의 ‘하다치공업벨트’의 중핵을 ‘장길도’로 선택하고, ②압록강·두만강변의 동변도철도의 끊어진 구간 신규건설을 통해 ‘요령연해경제벨트’, ‘장길도’, ‘하다치공업벨트’를 모두 연결시키는 한편 북한에게 다리연결 등 도로·철로의 인프라정비(신압록강대교 건설, 권하-원정 다리보수공사와 원정-나진항간 도로건설, 압록강 및 두만강지역의 여러 통상구 정비 등)를 촉구하며, ③ ‘장백산문화론’속에 백두산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라선특별시(청진항 포함) 건설 및 신의주지역 개발 참여를 모색하는 중국의 전략적 구도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ㄱ

30) 1930년대 초반 청진항, 나진항, 웅기항(현 선봉항) 등 북부 3항, 특히 나진항의 완성은 일본과 만주국의 연결에 있어서 남만철도의 대련-장춘 간선과 맞먹는 양대 간선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이로써 만주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시스템은 부산을 중심으로 대련과 나진이 좌우날개를 형성해 남만주 일대의 물자는 대련항으로, 북만주의 원료는 나진항으로 집결하는 구도를 구축하였다.

〈참고 문헌〉

- 김강일, “북-중경협이 남북정치안보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북-중경협시대의 한국의 대북정책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한중세미나, 2010. 10. 28, pp. 27~40.
-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최근 조·중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평화재단 주최 전문가 포럼, 2006년 4월 20일, pp. 13~42.
- 배종렬, “北·中 간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수은북한경제」, 2009년 여름, pp. 37~58.
- _____, “국제금융위기와 북한경제의 진로: 광명성 제1·2호 발사 전후시점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2009년 여름, 제9권 제2호(통권34호), pp. 189~229.
- _____,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2010년 여름호, 수출입은행, pp. 1~24.
- 윤휘탁,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야욕”, 「시사인」, 2009. 12. 31.
- 우하오(Wu hao), “창치투(長吉圖)개발개방선도구와 대 투먼강(圖們江)지역협력개발과의 관계”, 「대두만강 개발계획과 환동해권지역의 발전전략」, 강원발전연구원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주최 한-중 세미나, 2010. 4. 7, pp. 26~29.
- 唱新, “中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世界經濟評論」, 2006년 5月号.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 무역협회, KITA.NET.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년호.
- 연합뉴스, “中 잇단 만리장성 늘리기 속셈은?”, 2009. 9. 27.
- 사회과학원학보편집위원회, 「사회과학원학보」, 각년호.
- 조선신보, 2010. 5. 12.
- 길림신문, “장백산관위원회 청급으로 진급”, 2006. 8. 3.
- 길림신문, “국무원 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요강 정식 비준”, 2009. 11. 18.
- 길림신문, “연변 《주》를 연변 《시》로 만들려고 한다”, 2010. 3. 9.
- 길림신문, “장백산인구 100만명 풍경구 겨냥”, 2010. 9. 2.
- 연변일보, “장백산관리위원회 청급으로 승격”, 2006. 8. 14.
- 연변일보, “도문 통로건설로 연룡도일체화 추진”, 2010. 7. 6.
- 연변일보, 2010. 8. 31.
- 연변일보, “도문 조선공업단지건설 순조롭게 진척,” 2010. 10. 13.
- 연변일보, “도문-청진-부산국제련합수송항성대상 본격 추진,” 2010. 10. 14.
- 연변일보, “해상통로건설 실질적 진척 이룩”, 2010. 11. 15.